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0월 27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 방역지원과장 박은정 ☎440-5641 • 담당자 박지원 ☎440-5647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보 도 시 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2021년도 하반기 도서지역 가축 무료 진료 실시**  
 - 10.20.~.22. , 28. ~ 29. 옹진군, 강화군 교동도·석모도 찾아  
 농가예찰 및 가축진료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도서지역인 옹진군 백령도를 찾아 가축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강화군 교동도와 석모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지역 가축 무료 진료 사업은 지리적 위치의 한계로 가축 진료 혜택을 받기 힘든 도서지역의 양축 농가를 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농가 예찰 및 가축의 건강 상태 검진, 환축 치료, 약품 처방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서지역 가축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하반기 도서지역 무료 진료를 통해 총 284농가, 9480두의 가축을 진료해 축산농가의 호응을 얻었다.

2019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적으로 1,400건 이상 발생하고

작년 겨울부터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는 철저한 차단방역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번 무료진료를 통해 북한 접경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크고, 야생조류 서식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취약한 옹진군 백령면 및 강화군 교동·삼산면의 축산농가에 방문해 방역 요령을 교육하고, 소·돼지 등 가축을 검진해 관련 약품을 배부한다. 또한 방역차량을 이용해 소독방역도 지원할 예정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하고 질병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며 아울러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포획작전 중으로 사고 위험이 있으니 도토리 줍기,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해 산이나 수풀에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고 말했다.